

K-국악, 국민과 세계가 함께 누린다

국립민속국악원, 대표창극 제작·상설·기획공연 확대 등 공연사업계획·핵심 추진 방향 제시



김중현 원장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2026년도 공연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비전 '국민과 세계가 함께 누리는 국립민속국악원' 실현을 위한 핵심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관람 환경 개선은 설계(3~5월)와 공사(8~12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예원당 중심의 제작·기획 역량을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지역 현장과 외부 무대 중심의 확산을 강화해 사업의 효율성과 관객 접점을 함께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립민속국악원은 대표 콘서트 제작 역량도 한층 강화에 따라 대표창극 '춘향'을 새롭게 제작해 오는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예원당에서 총 3회 선보이는 등 창극 특성화 기관으로서 대표 레퍼토리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상설·기획공연으로 △광한루원 음악회(총 16회) △K-국악 스테이지(총 17회) △다담(연 5회) △소리판(총 6회) 등을 운영하고, 설날·신년 공연과 지역축제 연계 공연, 대외협력공연도 연중 추진해 공공 공연의 역할과 관객 접점을 확대한다. 지역 공연 확산에 따라 경기 용인·광명, 경북 예천, 경남 김해, 충북 진천, 전남 영광·완도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선보일 계획이며, 2년 대표 창극 '독감야속 수레노래'는 국립극장 교류공연을 통해 관객과의 만남을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 교류로 7월에 일본 오사카와 오키나와에서 각각 1회 공연을 추진해 현지 관객과의 접점을 넓히고, 중국은 양국 정상 간 문화 교류 확대 기조에 맞춰 중국 중앙정부 및 문화예술 협력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전통예술 분야 공연·포럼 등 교류 과제의 추진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국악원 김중현 원장은 "2026년 국립민속국악원은 대표창극 제작과 상설·기획공연 확대, 지역 확산, 객석 환경 개선 국제 문화 교류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세계인에게 K-국악을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태권도원, 전국 우수 웰니스 관광지 중 외국인 방문 최다

태권도·결합 지역 관광 스포츠 관광 모델 주목



태권도원이 전국 88곳의 우수 웰니스 관광지 가운데 2025년 외국인 방문이 가장 많이 찾은 관광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태권도원이 전국 88곳의 우수 웰니스 관광지 가운데 2025년 외국인 방문이 가장 많이 찾은 관광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태권도 성지이자 2025~2026 한국 관광 100선인 태권도원은 전국 88곳의 2025 우수 웰니스 관광지 중 가장 많은 외국인이 방문한 관광지로 집계되었다. '우수 웰니스 관광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의 정서와 자연환경 등 여행객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관광지를 선정,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태권전과 명인관 등 '태권도원'을 다녀간 외국인은 3분기 기준 2만6510명이고 연말까지 3만1000명이 방문하는 등 태권도와 결합한 지역 관광, 스포츠 관광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실천이라는 명단위 지리적 약점을 태권도를 활용해 태권도인들을 위한 수련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가족·친구 등 비태권도인들을 위해 태권도 여행 상품 '태권스테이' 개발 등 태권도원을 활용한 스포츠 관광과 한국 문화를 알리는 주요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했다. 김중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국기 태권도는 세계 215개국에 보급되어 우리나라를 흥

공간으로 더욱 성장하는데 있어 지리적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태권도 여행 상품 개발, 안전을 바탕으로 한 태권도원 시설관리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손승기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태와 고평

4부 '곶패와 전쟁' (22)

가족이 먼저 생각났다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

산으로 진입한 남준은 역시 바깥처럼 달려갔다. 봄의 척후조 개나리와 진달래의 향이 온 산을 덮고 있었지만 그 향이 코에 닿기도 전에 남준은 한 바리 늑대처럼 달려갔다. 남준은 황전 뒷산에 이르렀고 산에서 마을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내려왔다. 선빌대 가 이미 마을로 진입할 수도 있어 조심스럽게 골목으로 들어갔다. 다행이 경찰은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않았다. 시간상으로는 이미 진입을 했어야 했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이겼지 살면 것 없이 남준은 얼른 명희의 집으로 내달렸다. 막 골목을 돌아다니는 사람과 딱 부딪치고 밀었다. "어머!" 남준도 놀라 부딪친 사람을 돌아봤다. 명희였다. 명희는 군복을 입고 있는 남준을 알아보지 못했다. "명희야, 나야!" 남준은 얼른 명희의 손을 잡았다. 그때였다. 경찰이 마을로 막 들어오고 있었다. 남준은 일단 명희의 손을 잡고 산속으로 뛰었다. 명희는 남준임을 알아보고는 남준이 이끄는 대로 뒤쫓았다. 애초 남준의 계획은 박명희를 만나 실정을 설명하고 명희 가족 모두를 피신시키는 거였다. 그러나 다행 상황은 너무 긴박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황전마을 뒷산으로 올라가 마을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숲속에 자리를 잡은 뒤 명희가 물었다. 남준은 남준 가족을 포함한 봉림 사람들이 박대우 일행에게 살해되는 것을 목격한 뒤 고장을 외가 가겠다고 나서 이곳을 떠났었다. 남준은 지난 10월말부터 지금까지 남준의 상황을 설명했고, 지금 강용대 중대가 황전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무사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도 보았다. 명희는 당연히 가족이 먼저 생각났다.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려야 할 텐데..." 말을 하면서 마을을 굽어다 봤는데 이미 선빌대가 마을을 접수했고 이어서 본대가 마을 진입로로 들어오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명희는 걱정했지만 남준도 대책은 없었

다. 지금 마을로 내려간다 해도 다른 방법이 없었다. 명희의 집으로 가서 박규환과 영기택 및 동생들을 데리고 나와 산으로 피신시킬 수 있겠는가. 강용대를 비롯한 본대가 황전으로 들어왔다. 강용대 앞에서 조금 전 봉림에서 왔던 강민석이 같이 걸어들어와 있었다. 명희와 남준은 숨을 죽이고 마을을 지켜봤다. 종대는 마을 주위로 병력을 배치시켰는데 마을을 포위하는 형태가 되었다. 잠시 후 강용대가 소대장들을 불러 무슨 말인가를 했고 소대장들은 흩어져서 소대원들에게 역시 뭔가를 지시했다. 명령을 받은 소대원들은 즉시 흩어져고 마을 사람들을 집어서 나오게 했다. 마을 사람들을 모두 골라내 모이게 했는데 앞을 바라보고 방바닥에 엎드리게 했다. 강용대는 옆에 있던 강민석에게 무슨 말인가를 했고 강민석은 곧바로 황전 사람들이 엎드려 있는 뒤쪽으로 붙어갔다. 강민석은 뒤에서 손가락으로 한 사람씩 지목했고 강용대는 지목된 사람을 주민들과 떨어진 자리로 옮겨서 역시 방바닥에 엎드리게 했다. 뒤에서 주민들의 뒷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가려내는 터라 조금 더뎠고 사람을 잘못 가려내는 경우도 있어 시간은 지체되었다. 지목되어 나온 사람들은 모두 박대우가 봉림 사람들을 살해할 때 가담했던 사람들이었다. 강민석의 지목이 끝나자 강용대는 지목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골라냈다. 박주성이었다. 강용대가 박주성을 한쪽으로 데려가 무슨 말인가를 했고 박주성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지목되어 따로 떨어진 사람들 말고 남이 있던 마을 사람들 중 한 사람씩을 지목했는데, 지목된 사람들 역시 강민석이 추려낸 사람들과 같이 엎드려 있게 했다.

▶ 서평 - 나인권 '나인권과 시민주권시대'

겨자씨 한 알의 믿음, 정치를 다시 사람에게로

김제출신 재선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인 나인권 의원이 '나인권의 시민주권시대'를 펴내고 오는 2월 1일 오후 5시부터 김제역고 시청각실에서 출판기념 콘서트를 연다. 나인권 의원의 책을 읽어 볼 기회가 있어 내용을 읽어 보았다. 정갈하고 깔끔한 나 의원의 성격을 닮은 진솔하고 정겨운 문체의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 서평의 글로 몇 자 적어본다. 어떤 정치인의 언어는 크고 요란하다. 그러나 어떤 정치인은 낮고 조용하다. 나인권 전북도원의 책 '나인권의 시민주권시대'는 후자에 속한다. 이 책은 세상을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가 너무 오래 외면해 온 질문 하나를 조용히 건넨다. "정치는 누구의 삶에서 시작되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에 자신의 믿음을 가진 저자로서 소시민의 삶을 대변시켜 답변한다. 이 책의 첫 장을 넘기면 정책이 아니라 사람이 등장한다. 들녘에서 하루를 여는 농민, 가게 문을 여는 상인, 아이의 손을 잡고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 말없이 세월을 견뎌온 어르신들이 나와 독자에게 잔잔한 감동을 준다.

"정치란 권력을 쥐는 기술 아닌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책임"

나인권 도의원은 이들을 보호의 대상이나 '정책 수혜자'로 묘사하지 않는다. 그들의 삶을 정치의 출발선에 세운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정치가 갑자기 가까워진다. 국회나 도청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걷는 골목과 들뜬에서 정치가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뿌리를 삼다'에서 저자는 자신이 왜, 어떻게 인권을 정치의 중심에 두게 되었는지를 담담히 고백한다. 제도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불공정, 약자의 목소리가 쉽게 지워지는 현실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묻는다. "정치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그가 내린 답은 단순하지만 단단하다. 정치란 권력을 쥐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책임이라는 것. 이 인식은 이후 모든 정책 판단의 기준이 되고 그의 정치 행보를 관통하는 중심축이 된다. 2부 '미래를 열다'에서는 김제의 현실이 구체적으로 펼쳐진다. 인구 감소, 지역 침체,

불균형이라는 무거운 과제 앞에서 나인권 의원은 손쉬운 개발 논리를 택하지 않는다. 대신 사람 중심의 행적, 배제되지 않는 도시, 약자가 안전한 공동체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이 부분이 인상적인 이유는 그것이 이상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설계도이기 때문이다. 시민 참여 행정, 공정한 기회 구조, 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차분히 설명한다. 독자는 이 대목에서 깨닫게 된다. 이 책은 꿈을 말하는 정치가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정치의 기록이라는 사실이다. 3부 '도정 활동 보고'는 이 책의 가장 단단한 장이다. 나 의원이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쌓아 올린 성과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가 숨김없이 담겨 있다. 크지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 제도 개선 하나가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이지 않던 행정의 틈이 어떻게 메워지는지가 생생히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는 추천의 글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 "나인권 의원은 말보다 행동으로 실력을 증명해 온 정치인입니다. 현장을 떠나지 않으



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차곡차곡 만들어 왔습니다." 이 한 문장은 이 책의 성격을 정확히 짚는다. 이 책은 성과를 과시하는 보고서가 아니라 책임을 증명하는 기록이다. 박명계 국회의원은 이 책의 진솔함에 주목한다. "거창한 구호보다 현장에서의 고민과 선택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담긴 책입니다. 독자

에게 정답을 주기보다, 함께 생각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이 책은 독자에게 판단을 맡긴다. 그래서 정치에 무관심했던 사람도, 이 책을 읽는 동안 자연스럽게 '우리 동네의 미래'를 떠올리게 된다. 산은 혼자 옮겨지지 않는다. 책의 제목에 담긴 '산'은 기록적이고 관행이며, 오래된 정치의 방식이다. 그리고 저자는 성경의 한 구절을 빌려 말한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은 옮겨진다." 그 믿음은 정치인의 결단이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와 권리 의식에서 시작된다고 그는 강조한다. 그래서 이 책을 덮고 나면 독자는 더 이상 구경꾼으로 남을 수 없다. 변화의 바깥이 아니라 변화의 안쪽에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 책은 정치가 멀게 느껴지는 사람에게,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시민에게, 그리고 여전히 사랑을 믿고 싶은 독자에게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준다. 산은 혼자서는 옮겨지지 않는다. 그러나 함께 가면, 그리고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있다면 산은 반드시 움직인다. 나인권의 시민주권시대는 그 믿음을 독자의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는 따뜻하고 단단한 정치의 기록이라는 생각이 들며 감히 독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이만희 기자